

삶의 흐름: 시차와 연동

이 인 기

『율리시스』(*Ulysses*)의 제8장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Lestrygonians”)에서 블룸(Bloom)은 삶을 흐름으로 인식한다.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사물과 의식은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이 삶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통념에 기초하지 않고 구조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이 장에서 블룸이 시차(parallax)를 구현하고 있고, 조이스가 이 장의 창작의도를 밝히는 계제에 내장의 연동작용(peristalsis)을 거론한 대로(Budgen 98) 블룸의 의식도 연동작용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시차와 연동의 개념이 흐름을 구성하는 구조적 절차가 된다는 것이다. 개념상, 시차와 연동은 시점과 물리적 작용이라는 상호이질적인 범주에 속해 있지만, 본고는 차이가 운동을 발생시킨다는 물리적 원리를 이 두 개념이 구현하고 있어서 인간의 삶의 과정을 설명할 때 연속적으로, 혹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차는 현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는 상대 관점의 소멸이나 응시 대상의 삭제에 유발함으로써 운동, 즉 연동작용을 수반하여 결국 삶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게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처럼 시차와 연동이 흐름을 구성하는 연속적 요소라 보고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장을 중심으로 조이스의 생활세계(*Lebenswelt*)인 종교, 가정, 정

치의 세 영역에서 시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치하는 관점들이 어떻게 소멸이나 삭제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삶을 흐름으로 인식하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때는 삶을 흐름으로 인식하는 조이스의 태도가 “무질서를 선언하며 허무주의를 비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오인하는 비평가도 있기도 했다(Eco 44 참고). 하지만, 삶의 흐름은 흐름의 원숙한 세계 인식을 대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Deasy) 교장과 같은 단선적인 지향을 우회하여 무질서와 허무주의까지도 포용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삶의 흐름은 곧 역사의 과정을 구성하기도 하므로 조이스의 역사 인식의 포괄성도 입증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I. 시차

블룸은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장에서 오후 1시가 지날 즈음 저하물 취급소 지붕의 표시구(timeball)를 보다가 천문학 서적에 나오는 ‘시차’라는 용어를 떠올린다(U 8.110). 그는 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근처에 있던 신부에게 물어볼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쫓다가 기회를 놓치고 만다. 시차란 두 지점에서 단일한 대상을 관측했을 때 두 관찰자의 시선 사이의 차이를 일컫는다. 주로 천문학에서 관찰 대상에 대한 정밀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비유적으로는 관점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차는 관점이 변하면 인식론적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라캉의 ‘응시’(Miller 215)도 포함하게 되는 개념이다.

‘응시’의 개념에 의하면 시차는 상호주관성을 의미할 수 있다(Miller 220). 예를 들면, 블룸이 버턴 식당(The Burton restaurant)에서 사람들의 식사 행위를 보고 짐승을 연상하며 혐오감을 느끼지만 “내가 저와 같은가? 다른 이가 우리를 보듯이 자신을 보라구. 배가 고프면 화가 나니까.”(U 8.662-63)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이가 우리를 보듯이 자신을 본다’는 말은 로버트 번즈(Robert Burns)의 시 「이」(“To a Louse”)에 나오는 구절로서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수많은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를 대변한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Hungry man is an angry man)는 말은 ‘배

고픈 이'와 '화난 이'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짐승처럼 식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면 화날 정도로 배고픈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더블린 시내를 다니던 블룸은 실제로 이러한 시차를 구현하고 있다. 그 시간에 그가 주목한 대상은 성직자와 아내와 파넬(C. S. Parnell)의 형인데, 각각 종교, 가정, 정치의 영역을 대변한다. 이 세 영역은 스티븐을 통해서 언명되었듯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삶의 현장으로서 불복종 혹은 비판의 대상이다. 따라서 더블린의 삶의 끈고한 일상이 블룸의 의식을 통해서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의식 속에서 인지하였건 실제로 목격하였건 그 대상들은 결국 블룸을 바라보기도 한다. 비판적 시선과는 달리 상호주관적 욕망이 투사된 또 다른 시선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1. 성직자

블룸은 우울한 표정의 한 청년이 건네 준 전도지를 읽는다. 처음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아 놀랐는데 그것이 '양의 피'(Bloo ... Me? No. Blood of the Lamb. U 8.8-9)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의 이름이 예수의 피와 겹쳐진 것은 그가 예수와 같은 이미지를 편린이나마 구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태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그의 의식을 거쳐 나온 전도지의 내용이 기존 종교 제도의 형해를 연상시키는 것은 논리적이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양의 피로 씻겨집니다. 하느님은 피의 희생을 원하십니다. 탄생, 혼인, 순교, 전쟁, 건물의 초석, 제사, 룡팔 번제, 드루이드 교도의 제단. 엘리야께서 오십니다. 시온에 교회를 회복하실 자, 존 알렉산더 도위 박사께서 오십니다. (U 8.10-14)

하느님이 피의 희생을 원한다고 언표되는 순간 종교는 이미 제도화된 것이다. 언표는 본질적인 행위를 역사화하고 규격화함으로써 왜곡한다. 하느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그 피로 인류를 구원한 행위가 문장으로 정돈되는 데에는 이데올로기 등의 조건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행위의 의미보다 혼인에 대한 교리, 순교와 전쟁을 감행하는 교의, 교회 건물과 예배 의식 등의 제도적

용어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온에 교회를 회복하실 자’인 도위(Alexander Dowie) 박사는 전도지에서 선전하는 바와는 달리 블룸의 의식 속에서 중혼,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십자가, 현란한 빛으로 눈을 속이는 서커스, ‘쇠뿔이 박혔나이다’로 회화화된 십자가 형벌 등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엘리아’는 제도화된 종교의 실태를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블룸은 그 사실을 성직자의 행태를 통해 다시 한번 폭로한다. 딜런(Dillon) 경매장 밖에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는 데덜러스(Dedalus) 씨의 딸과는 대비되게도 성직자들은 일반 신도들에게 생활고를 겪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호의 호식한다.

그이는 자식이 열다섯이나 돼. 거의 매년 낳은 거야. 그게 그들의 신학에 있어. 그러지 않으면 신부는 그 가련한 여인에게 고해도, 사면도 주려고 하지 않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사고방식을 접해본 적 있어? 그들은 집과 가정을 먹어버리지. 먹여 살릴 가족도 없으면서. 그 땅의 기름진 양식을 먹고 살아. 그들의 식품저장고와 고기저장고. 나는 그들이 속죄일(욘키푸르)에 흑암의 단식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런데 십자가 빵을 먹잖아. 게다가 한 끼 식사를 하고도 제단에서 꼬꾸라질까봐 간식까지 먹어. 저들이 사는 얘기를 알아내려면 저들의 가정부 한 명이면 돼. 하지만 절대로 알아낼 수 없을 거야. 저들에게서 돈을 얻어내는 것과 같은 일일 것이니까. 잘 살잖아. 손님도 없고. 온통 자기 위주야. 자기 오줌 색깔을 살피면서. 네 버터 바른 빵 갖고 와라는 식이야. 신부 왈: 너만 알고 있어. (U 8.31-40)

성직자들은 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부식하고 심지어는 그 교리 때문에 신도들의 생계부담이 늘더라도 아랑곳없이 ‘기름진 양식’을 먹고 산다. ‘기름진 양식’이라는 어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이집트를 환기시키므로(Gifford 158) 성직자의 세속성 혹은 배교적 행태를 지시한다. 그들은 단식에 대한 계율도 편의대로 지키며, 오줌 색깔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도 신도들의 식량을 탐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행태를 비밀로 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들의 영혼이 타락하였음을 방증한다. 사실상 성직자의 탐욕은 “왕좌에 앉아 붉은 대추를 희지도록 빨아대는”(U 8.4) 영국의 압제와 다르지 않다. 이에 블룸은 갖고 있던 전도지를 구겨서 강물에 던져

버린다.

교회의 이러한 행태는 역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기도 했다. 교회는 신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특히, 대기근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배를 타고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도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는 등 재물을 부렸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격감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려는 듯 교회와 성당, 수녀원과 수도원, 그리고 신학교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있다. 그것들은 퀸스타운에서 뉴욕까지 향해갈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돈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끈끈이를 배가시켰다. 아일랜드는 무수한 직무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이제껏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던 일을 수행해 왔다. 즉 신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고, 영국에 수탈당하면서도 베드로에게 바칠 헌금을 늘려주었다. (CW 190)

블룸이 종교를 ‘수지맞는 책략’(U 8.17; 11.187)이라고 규정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성직과 탐욕이 동일선상에 있는 현실을 그들의 탐식성을 통해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직자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선이 「아이올로스」(“Aeolus”)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블룸이 부당함(injustice)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블룸이 지적하는 성직자의 탐식은 그가 버튼 식당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동물성에 상응하고 그 동물성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대변하고 있다.

짐승들이 먹는 걸 봐. (U 8.651-52)

모두가 자기 살 길에 매달려, 이빨, 손톱 다 세우며. (U 8.701)

먹기 아니면 먹히는 거야. 죽여라! 죽여! (U 8.703)

속인들이 보이는 이 같은 동물성이 교리의 권위 뒤에 은폐된 성직자들의 인간적인 본성을 대변한다고 보는 이유는 성직자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여러 가지 배교적 행태 중 굳이 탐식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직을 이용하는 위선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화석화된 교리를 고수하며 탐식하게 된 성직자들의 인간

적인 존재론적 취약성이 현전해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다.

사실상 불륜으로서는 동류의식을 느낄 수 없어 “여기서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어.”(U 8.673)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상황이지만, 신의 고귀한 희생이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본능적 행위는 생존을 위해 짐승처럼 먹어대며 자기위주로만 살아가는 행위 이상은 아닐 것이다. 버튼 식당의 동물성에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부당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점잖은 식당’(moral pub, U 8.732)을 선호하는 취향을 지닌 불륜도 허기를 느끼며 식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활이나 의식이 상대적으로 문명적 격식을 갖추고 있었을 따름이지 불륜 또한 데이비 번즈(Davy Byrne’s) 식당에서 보듯이 식사와 성과 배설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질편하게 먹고 성을 즐기는 행위는 자신의 문명적 격식 때문에 상상의 세계로 전치된 것일 뿐 인간의 원초적인 조건을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쪽 구멍으로 음식을 쑤셔 넣고 뒤로 내놓지: 음식, 유미, 피, 똥, 흙, 음식. 기관차에 불을 지피듯 먹어야 한다구. 그들은 [항문] 없어. 본적이 없는 걸. 오늘 봐야겠다. 수위는 보지 않을 테고. 허리를 굽혀 땀가를 뿜어뜨리는 거다. 있는지 봐야지. (U 8.929-32)

인간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은 위에서 유미 상태로 바뀌어 소화되고 피가 되며, 똥이 된 것은 밖으로 나와서 흙이 되고 그 흙 속에서 다시 음식이 생겨난다. 이 같이 인간 세계는 [항문] 없는 신의 세계와는 달리, 순환해야 존속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인간은 ‘기관차에 불을 지피듯이 먹어야 한다.’ 따라서 화석화된 교리만 성행하여 생존본능을 승화시키지 못하는 교회에서 버튼 식당과 같은 공간이 재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일 수 있다.

2. 아내

불륜은 길가에서 한때 연인 사이였던 조시 파웰(Josie Powell)을 만난다. 그녀와는 낭만적인 추억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이제 편집증 환자인 남편 데니스 브린(Denis Breen)에게 시달리며 사는 모습이 역력하여 안쓰러워한다. 그녀의 입가에 주름살이 쳐 있고 볼에는 설탕 가루가 묻어 있으며 치마에는 빵 부스러기를 붙인

채 바깥나들이를 하는 행색이 2년 전에 입어서 탈색되어 해진 파란색 서지 천 드레스만큼이나 초라해 보인다. 그녀의 남편을 분개시킨 ‘넌 볼썽 다 봤어’라는 문구가 그녀에게도 별로 낯설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U 8.274). 블룸은 그녀가 남편 때문에 너무 시달렸을 것이라며 연민을 느낀다(U 8.318-19).

한편, 브린 부인이 남편을 애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경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눈에 띄자마자 옛 연인과의 환담을 끊고 달려가야 하는 정도라면 가부장적 질서에 길들여진 전형적인 경우이다. 편집증은 가부장제의 자기중심성을 정신병리학적으로 환유하며 주변 사람을 폭력적으로 구속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린 부인의 말 속에는 그녀와 흡사한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한다. 사흘간 산고를 겪고 있는 퓨어포이(Purefoy) 부인인데, 블룸이 생각하기에, 브린 부인과 다름없이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실제로 퓨어포이 부인의 남편에게서도 편집증적인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볼썽한 퓨어포이 부인! 남편은 감리교 신자지. 그놈의 미친 짓에도 조리가 있어. 사프론 꽃빵과 우유와 소다수, 교육농장 제품으로 점심을. Y. M. C. A. 스톱와치로 시간을 재며 밥을 먹지, 분당 32번 씹기. 그리고 여전히 양갈비 모양의 구레나룻을 기르고... 그는 아내에게 힘겨운 연례행사를 치르게 하지... 그러고는 해마다 밤새 젖을 물리게 해. 저런 금주자들은 이기적이야. 여물통의 개처럼. (U 8.358-66)

시간을 재며 식사를 할 정도의 편집증은 그가 주변 사람, 특히 아내의 실존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위의 두 남편과 같은 가부장적 ‘여물통의 개’는 조이스 개인의 이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매장 밖에 서 있던 딜리(Dilly)를 보고서 블룸이 떠올렸던 데덜러스 씨의 집안은 조이스의 어머니에 대한 심상을 연상시킨다.

내 심정으로는 현재의 전체 사회 질서와 기독교 — 가정, 알려진 덕목들, 생활 계층과 종교적 교의 등을 싫어하오. 내가 어떻게 가정이라는 것을 좋아할 수 있었겠소? ... 어머니는, 생각컨대, 아버지의 학대 때문에 서서히 숨겨가셨지요.... 관에 누운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 나는 내가 희생자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느꼈고 그녀를 희생자로 만든 그 체제를 저주했었소. (Letters II, 48)

무책임한 남편이었던 아버지는 자식이 아홉, 열쯤 되고 몇 명은 죽기도 할 정도로 (PA 241) 어머니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했고 끼니 걱정까지 하도록 방치하였다. 조이스는 아버지의 이러한 행태를 남편이 아내에게 가한 가부장적 폭력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폭력과 희생의 체제인 가정이라는 제도를 저주했었다.

하지만, 이처럼 가부장적 체제 아래서 ‘가정의 천사’로서 고통 받는 아내가 있는 반면에 남편에게 고통을 주는 아내도 존재한다. 블룸은 아침에 아내가 보일런(Boylan)의 편지를 베갯머리에 감추는 순간부터 수시로 아내 때문에 괴로워한다. 물론 아내에 대한 의혹은 그 편지 때문에 촉발되었다기보다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었다. 그는 과거에 아내와 보일런과 함께 톨가(Tolga) 강변을 산책하는 중에 아내와 보일런이 노래를 이어 불렀으며 서로 팔꿈치와 팔을 맞닿으며 걸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들이 서로 손가락 암호를 주고받을 때 아내가 ‘좋아요’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들 사이의 성적인 교섭도 의심하고 있었다. “그만. 그만. 그러면 그런 거지. 분명해.”(U 8.592)

이러한 의혹에 싸여 있으며 조바심을 느끼는 그가 아내와의 연애시절을 황홀하게 떠올리는 것은 현재의 초라한 상태를 현격하게 부각시킨다.

황홀한 기분으로 나는 그녀의 위쪽에 누웠지. 풍만한 입술을 다 벌린 그녀의 입에 키스를 했고. 맛있는. 그녀는 씹어서 따뜻해진 씨드 케이크를 내 입안으로 밀어 넣었어. 느껴거리는 과육을 입안에서 침과 버물러 달콤하고 시큼하게 만든 것이었지. 기뻐: 나는 그것을 먹었고: 기뻐지. 젊음의 생기, 내게 뼈죽이 내민 입술. 부드럽고 따뜻하고 끈적한 고무젤리 같은 입술 격하게 나는 그녀 위에 누웠고 그녀에게 키스를 했지. 눈에, 입술에, 맥박이 뛰는 쪽 뺨은 먹살에, 얇은 나사천 블라우스 속의 풍만한 여인의 가슴에, 오뎅 선 도톰한 젖꼭지에. 몸이 달아오른 채 나는 그녀를 활았어. 그녀가 내게 키스를 했고 나는 키스를 받았지. 그녀는 온 몸을 내맡긴 채로 내 머리칼을 쥐고 흔들었어. 키스를 받으며 그녀는 내게 키스를 했지.

나를. 그런데 지금 나를. (U 8.906-17)

장황하게 묘사된 과거의 행복과 단출하게 표출된 현재의 상태는 그 길이의 차이만큼이나 그의 배반감을 증폭시켜 드러낸다. 그가 과거를 “행복했어. 그때는 더 행복했지.”(U 8.170) 그리고 ‘기뻐어’로 계속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현재 느끼는 자괴감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녀의 배신은 여성이 '가정의 천사'가 아니면 '창녀'가 되는 당시의 고정관념도 환기시킨다. 그녀의 행위가 순회 연주를 해야 하는 직업상의 비구속성 때문인지, 남편을 압도하는 방자함 때문인지, 혹은 루디(Rudy) 이후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U 8.610) 남편 이외의 대상을 찾게 되었기 때문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그녀는 '머리카락'과 '바위'와 '노래 부르는 직업'이 연상시키는 대로 사이렌처럼 남자를 유혹하는 여성의 심상을 가진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Higgins 53-56). 이처럼 유혹하는 여자의 속성을 지녔으므로 블룸 또한 아내와의 관계를 '자신도 몹시 원했다'(U 8.792-93; 854).

이런 유혹자로서의 아내의 행위에 대해서 블룸은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아내에 대해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대남인 보일런과 마주치는 순간도 의도적으로 피하였다. 이러한 행위의 이면에는 육욕적인 아내와 동물적으로만 인지되는 보일런과의 관계를 단순한 배설행위로 인식하려던 합리화의 기제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남자가 작심하고서는 술잔을 바닥까지 들이키고 걸어갔다, 그들 역시 인간들에게 몸을 맡겼다, 인간이라 생각하고서, 인간인 연인들과 함께 누웠지, 한 젊은이가 여신을 즐겼다. 마당으로. (U 8.934-36)

그가 술잔을 들이키고 마당으로 소변을 보러가는 장면이 여신과 인간의 교점의 의식의 흐름으로 삽입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성과 배설을 동일시하며 성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즉, 블룸은 아내의 배신을 단순한 배설행위로 치환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호우드(Howth) 언덕의 환상이 공교롭게도 교접하는 두 마리의 파리가 웅웅거리는 소리 속에 끼여져 있는 것도(U 8.896; 8.918) 자신의 연애시절 행위뿐만 아니라 아내와 보일런의 행위 자체를 파리의 교접 정도로 치부하고자 하는 잠재의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망명자들』(Exiles)의 리처드 로우언(Richard Rowan)처럼 아내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려는 확신주의자도 아니고, 로버트 핸드(Robert Hand)의 지적대로 자신 스스로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열정의 충동은 따르지 않으려는(E 112) 금욕주의자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중년의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유지하려는 평범한 욕구를 지닌 사람일뿐이었다. 그가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이와 같은 합리화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물론, 이 때문에 그도 여성을 ‘가정의 천사’가 아니면 ‘창녀’로 규정하던 당시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드러난다.

3. 정치인의 형

블룸은 퓨어포이 부인에 관한 말을 전해 듣고 그 부인이 식초물 묻힌 수건을 이마에 얹고서 사흘 동안 산고를 겪고 있을 것을 상상하며 무통분만법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그 뭐더라 그 은빛 광채가 나는 명상에 잠긴 가슴 같은 소리나 떠벌리는 대신에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U 8.380-82) 여기서 ‘은빛 광채가 나는 명상에 잠긴 가슴’은 블룸이 「아이올로스」장에서 들은 댄 도슨(Dan Dawson)의 연설문의 한 구절이다.

아니면, 줄줄 흐르는 시냇물이, 이끼 낀 둑 사이로 산들산들 서풍을 받으며 찬란한 햇빛과 노닐면서 혹은, 숲 속에서 하감하는 거목들의 수림이 **명상에 잠긴 가슴** 위로 드리운 그림자 아래에서, 재잘대다가 바위 장벽을 만나 싸우기도 하지만 굽이굽이 흘러서 냇문의 푸른 영토, 넘실대는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라... 말하자면, 우리의 부드럽고 신비스러운 아일랜드의 황혼의 초월적이며 반투명한 광채에 젖어 있는 봄날 초원의 우거진 숲과 구비치는 평원 그리고 감미로운 목초지, 바로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비록 멋진 곳이라 자랑하는 다른 지역의 대표적 장소가 있기는 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아일랜드 화첩의 비길 데 없는 전경 속에서... (U 7.243-324, 필자 강조)

그는 이같이 화려한 수사적인 장식으로 포장된 조국에 관한 전망보다도 산고라는 실존적인 고통의 해소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의 생각 속에는 당시 사회에서 정치의 비중이 폄하되고 있는 현실이 스며 있다.

즉, 한 여인의 산고와 연설문이 겹쳐 제시되는 상황은 실존적 고통과 그것과 거리가 먼 수사적 세계의 대비를 두드러지게 한다. 산고는 사실상 당시 아일랜드인들이 겪고 있던 피식민지인으로서의 고통에 대한 객관적 상관물일 수 있는데, 그 실존적 고통의 수준이 정치적 무능의 수준을 반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 연설문의 수사적인 과장은 산고와 같은 현실과의 격차를 더 부각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따라서 블룸의 생각은 사흘째 산고를 겪는 여인의 처지에 무통 분만을 유도

해줄 구세주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사실상 제기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블룸이 현실에서 확인하는 정치인들의 역량은 구원의 전망을 암시하지 못한다. 그가 젊은 시절 목격했던 폭발적인 정치력의 구현체였던 시위대들은 이제 현실의 요구에 따라 영국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되어 있다.

어리석은 인간들. 때로 모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애송이들. 비니가 산. 버터 거래 조합의 취주악단. 몇 년 있지도 않아서 그들 중에서 반은 치안관사나 공무원들이 되었지. 전쟁이 나자 허둥대며 [영국군에] 입대를 했고. 바로 그 녀석들이 그랬었지. “교수대에 높이 달려 죽든”을 부르던 녀석들. (U 8.437-40)

취주악단의 요란스런 주악을 배경으로 웨クス포드(Wexford) 항쟁의 최후 격전지인 비니가 산의 정신을 계승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 노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중의 절반은 영국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블룸은 자신이 그들의 시위 행렬에 섞여 있다가 봉변을 당했던 기억에 대뜸 화가 날 뿐이다.

그리고 그가 우연히 목격한 파넬의 형은 그 존재 자체로 파넬 이후 아일랜드 정치의 쇠락상을 구현하고 있다.

위대한 인물의 형제: 자기 동생의 형제. 공무원 말을 타고 있었으면 근사해 보였을 것인데. 제과점에 들러서 아마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장기를 두겠지. 그의 동생은 사람들을 인질처럼 부렸어. 모두 다 파멸시켰고. 자신에 대해 누군가 한 마디 하는 것을 싫어했지. 그 사람들을 시선으로 제압해버렸어. 호리는 거지: 그 이름도. (U 8.509-13)

그 위대했던 정치가는 이제 혈육의 모습에 새겨진 인상, 시선, 이름 등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 그 흔적을 지시하듯이 파넬의 형은 한직에 머물며 내대에 제과점을 들러 소일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제는 그 지도자의 위대성에 가려져 있던 과거의 행적이 비판적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정치적 역량의 쇠락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구름에 가려졌던 태양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듯이 정치적 현실이 이상 자체를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즉, 태양이 다시 비치면서 위대했던 정치인의 형이 블룸의 눈앞에 등장한 것은, 그 태양이 자치(Home Rule)의 태양을 지시한다

고(U 8.473-74) 할 때 단순히 쇠락한 정치적 현실만의 구현이라기보다 위대한 정치인이었던 파넬의 영향이 더블린의 거리에 여전히 잔존해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애국자의 연회. 공원에서 오렌지 껌질들을 먹지. 사람들이 그[쉬히]를 의회원으로 선출했을 때, 사이먼 데덜러스는 파넬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를 하원에서 팔뚝을 잡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U 8.516-19)

이처럼 더블린의 일상은 오렌지를 먹는 일상적인 행위로 친영단체인 오렌지맨(Orange man)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파넬이 자신의 형을 낙선시킨 쉬히(David Sheehy)를 무덤에서 나와서 끌어내릴 것이라는 위대한 정치가의 부활에 대한 염원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 죽은 정치가의 부활을 염원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의 상대적 끈고함을 웅변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구세주적인 존재의 출현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변론의 재주나 타고난 정치적 재능도 없으면서 막강한 영국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게 만들었으며, 또 다른 모세인양, 난폭하고 침착하지 못한 족속을 치욕의 집으로부터 약속의 땅 근방까지 이끌었던 지도자. (CW 225)

모세(Moses)에 비견되는 파넬은 “끈고한 때 같은 그릇에 손을 담근 제자가 그를 배반할 것이다”(CW 228)라는 말 속에 함축된 대로 예수에 비견되는 구세주적 존재였다.

그리고 그 구세주적 존재에게 바라는 것은 불륨이 직접 보여주었듯이 장님 소년을 인도하여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다. 대영제국과의 관계에서 조국의 정치적 운명을 알 길 없는 더블린 사람들은 장님 소년과 같다. 그들은 장님 소년이 하듯이 바로 발 앞의 보도 연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전차가 다니는 길을 건너야 한다. 불륨은 장님 소년에게 장애물들을 피하도록 알려주면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도록 안내하였다: “됐어. 지나 왔네. 이제는 황소 뒤: 말 앞.”(U 8.1100) 그는 장님 소년을 황소 뿔에 반힐 일 없고 말 뒷발에 채일 일이 없는 곳으로 안내했지만 선심 쓰듯이 하지 않으려 했고(U 8.1092) 그의 운명적인 장애에 대

해서 인간적인 동정심까지 느꼈다(U 8.1144-46). 그는 구세주의 역할을 체현해 보인 것이다(Blamires 69).

II. 연동과 흐름

살펴본 대로, 성직자는 신의 세계를 대변하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생존본능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내는 가정의 천사일 수 있지만 창녀로 재단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인은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지만 메시아적 영도력의 표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시차는 공시적 차원에서 보면 상반된 견해가 갈등하는 무질서를 생성하고, 통시적 차원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는 변화를 지시한다. 그렇다면, 시차가 존재하는 한, 항상성은 상실되고, 공시적이든 통시적이든 단선적인 질서 대신 갈등 혹은 존재의 소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 과정을 물리적 개념으로 연동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내장의 연동작용이 연속적인 밀어내기이듯이 시차가 유발한 연동작용도 갈등 혹은 소멸의 연속을 통해 방향성을 띤 흐름을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연동작용을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라는 말에서 처럼 육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Peake 200-1), 시차와 관련하여서는 정신 혹은 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인식의 작용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영역에서 시차는 성직의 권위를 퇴색시키는 동시에 신의 존재마저 탈각시키게 된다. ‘엘리야가 오신다’(U 8.13)며 구원을 선포하는 전도지가 구겨져 강으로 던져진 순간 사실상 성직자와 신은 수면 아래로 버려진 존재가 된다. 블룸이 쳐다보며 회화화하는 비둘기들도 스티븐이 생각하고 있던 새의 의미와 비교하면 신적인 존재의 탈각을 암시한다. 도서관 계단으로부터 날아오르는 새들이 스티븐에게는 미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 상징과 전조, 버드나무로 엮은 날개를 타고 유폐된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매 같은 사람, 글의 신 토스(Thoth)에 대한 두려움 등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던 반면에(PA 225), 블룸에게 있어서 아일랜드 의사당 앞에서 나는 비둘기 한 무리는 희극적인 상상의 대상일 뿐이었던 것이다. “밥 먹고 난 뒤 잠깐 장난치는 거야. 누구한테 갈지? 나는 저 상복 입은 사람한테. 자 간다. 행운 받아라.”(U 8.402-3)

블룸이 본 비둘기를 스티븐이 두려워하던 신적 존재로서의 새와 동일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순간 비둘기들의 희극성이 성령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탈각시킨다고 본다면, 탐식적인 성직자의 존재를 희화화할 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감마저도 삭제해버린다고 할 수 있다. 구겨진 전도지처럼 허공을 날며 배설물을 갈겨대는 대상이라면 신적인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동반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가 보일턴으로부터 ‘잠깐 동안 안전해지기’(U 8.1177) 위해 도서관으로 피했을 때 구실거리로서의 여신상 이상의 의미는 없게 된다.

그리고 신의 현신이라 할 여신상조차도 더 이상 신의 현전을 대변하지 못한다. 여신상은 “인간들이 내 분수를 지키지어다”(U 8.924-25)라는 명령을 연상시키는 대신에 관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멋진 몸매의 여신들, 비너스와 쥬노: 세상이 찬미하는 곡선. 도서관 원형 홀에서 있는 걸 볼 수 있지. 벌거벗은 여신들을.”(U 8.920-22) 그래서 신화시대의 생활의 강령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불카누스(Vulcanus)가 아내인 비너스(Venus)와 마르스(Mars)의 밀통을 알고 청동으로 얇은 실을 뽑아 그물을 만든 뒤 두 사람의 밀회 순간을 덮침으로써 적어도 부부간의 신뢰와 가족제도의 존속을 위한 조처를 취했던 반면에, 블룸이 아내의 밀통에 대해서 조바심만 낼 뿐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신의 강령이 희석되거나 망각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다.

가정의 영역에서 시차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제한하게 된다. 조이스도 가정의 천사로서의 여성이 일상의 삶으로부터 여성성을 삭제당하는 상황을 현장조사하듯이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Higgins 48). 블룸이 트란퀼라(Tranquilla) 수녀원에 수금하러 갔을 때 만난 수녀를 보고서 “그녀도 결혼했다라면 달라졌을 거야”(U 8.149-50)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수녀는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운명을 체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었을 수 있다. 수녀의 구속받는 생활이라는 것도 결혼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여성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여인인 마썸(Martha)는 ‘단추를 달아줄’ 또 다른 가정의 천사와 다르지 않다. ‘뭔가가 바뀌어도’ 가부장적 제도가 고착된 사회에서 여성은 ‘다른 세상’을 좋아할 수가 없다(U 8.27-8). 바로 그 ‘다른 세상’은 창녀의 심상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른 세상’은 마썸의 실수였을 뿐이다.

그때는 더 행복했었다. 아니, 내가 그랬던가? 아니면 지금 나는? 스물여덟이었지. 그녀는 스물셋이었고. 우리가 롬바르드가 웨스트 번지를 떠났을 때 뭔가가 바뀌었어. 루디가 죽은 뒤로 다시는 그것을 좋아할 수 없었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 손으로 물을 쥐는 것과 같아. 그때로 되돌아 갈 건가? 그때 바로 시작하는 거야. 그럴 건가? 가련한 장난꾸러기 당신은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 단추를 달아주고 싶다고. 답장을 써야지. 도서관에서 쓰자. (U 8.608-13)

‘다른 세상’은 분명 몰리(Molly)가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십여년간 방치당한 자신의 여성성의 일부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남편에 의해 행복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 블룸으로서의 가정의 천사였던 아내와 함께 지냈던 과거가 분명히 더 행복했었다. ‘장녀’가 아니었던 과거의 아내와 함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씨에 의해 재현될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가정의 천사와 행복을 동일시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환기시킨다. 몰리의 시도가 세계와 온전히 결합하기를 원하는 존재론적 실천으로 인식되기보다(Eco 49) 그녀의 게으름과 육욕적인 관계를 더 부각시키는 현실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는 부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영역에서 시차는 정치적 구호와 영도력의 허구성을 폭로하게 된다. 산고와 같은 정치 현실에서 정치적 수사만이 난무할 때 메시아적 영도자의 형상도 또 다른 수사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을 기표라 하고 목표를 기의라고 할 때 기표와 기의간의 거리는 기호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실과 유리된 정치적 구호와 메시아사상은 지향성을 상실하고 만다.

댄 도슨의 연설문이 더블린의 누향과 소음에 익숙한 도시민에게 “부풀린 허풍”(U 7.315)으로 들리듯이 현실의 기표에 장식을 부가할수록 기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연설문의 수사는 목표나 기대를 반영할 뿐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있고 오히려 실상을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위즈덤 헬리(Wisdom Hely's) 문구상을 떠나 더블린의 가로를 행진하는 샌드위치맨들 중 Y자 광고판을 맨 사람이 빵조각을 꺼내서 우적우적 씹으며 걸어갈 때 그 광고판이 문구상 선전의 의도와는 달리 더블린의 삶의 곤궁한 현실을 시현하기도 하는 것처럼, 기표가 기의로부터 멀어질 때 왜곡과 변형은 불가피하게 된다. 블룸이 투명한 광고차를 제안했던 것도(U 8.131-32) 기표와 기의간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다.

메시아적 영도자에 대한 회구도 역시 현실에서 그러한 존재의 부재를 확인시킬 따름이다. 불륨이 상정한 메시아는 파넬과 같은 현실 정치인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 인간 운명의 구원자까지도 포함하는 존재이다.

저렇게 태어나다니 정의가 어디 있는 거지? 뉴욕에서 주일학교 소풍을 가다가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은 저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 홀로코스트야. 전생에 저지른 죄 때문에 저렇게 환생하는 것을 업이라고들 하지. 재생 류운희(met him pike hoses). 저런, 저런, 저런. 물론 안 된 일이야. 하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것은 아니지. (U 8.1145-50)

하지만, 장님 소년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처럼 곤고한 정치적 상황에 운명처럼 매이게 된 더블린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일 수는 있어도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신은 이미 그 존재가 삭제되어버렸으므로 그의 정의는 동정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서만 구현될 뿐이고 인간의 정의는 프레드릭 포키너경(Sir Frederick Falkner)이 대변하듯이 권력자의 조작과 편견에 따라 좌우될 뿐이기 때문이다. 불륨은 메시아적 존재의 불가능성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종교, 가정, 정치의 영역에서 시차는 불륨의 의식 속에서 존재의 소멸 혹은 부재로 이어진다. 신이 인간의 세계로부터 삭제당하고 여성은 인간성이 소멸되며 정치 행위 자체가 소실되는 단계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멸 혹은 부재는 그 부정적 함의만큼이나 당시 더블린 사람들의 삶의 간난을 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즉,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U 8.498) 때문에 부재는 새로운 단계로 이어지고 그 움직임이 결국 흐름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연동의 시발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삭제당한 신의 세계 대신에 그 세계와는 비연속적인 인간의 세계가 생존본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현전하게 된다. 가정의 천사가 아니면 창녀로 인식되는 여성은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삭제당하고 그 공간을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의 관행이 점령하게 된다. 현실을 타개할 능력이 없는 정치가들과 메시아사상만 재생산되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 행위 자체가 실종되고 영국의 제국주의적 치세를 용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인간의 자연적 조건이 허기를 못 견디하므로 “기관차에 불을 지피듯” 채워 넣게 되고 그것이 연동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 존재의 소멸 혹은 부재가 뒤따르는 단계들로 해서 연속적인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이 같은 삶의 흐름은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장의 주 모티프이기도 하다(Friedman 132).

물론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장에 나타난 흐름은 선형적이다. 한 때 스티븐의 의식 속에서 전개된 변형을 수반한 순환적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 “시체 가스로 불룩한 바지가 더러운 소금물에 젖고 있다. 살찐 해면 조각 같은 피라미 때가 단추 채워진 바지 앞섶 사이에 번쩍인다. 하느님은 인간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따개비 기러기가 되고 깃털 침대 산이 된다. 살아 있는 나는 죽은 자의 숨을 쉬고 죽은 자의 흠을 밟으며, 모든 죽은 자들의 지린내 나는 찌꺼기를 포식한다. 뺏뺏하게 굳어서 뻗진 너머로 끌어 올려진 시체는 그의 녹색 무덤의 악취를 위로 풍겨 올린다. 그의 문드러진 콧구멍을 태양 쪽으로 벌름거리면서.”(U 3.476-81) 스티븐이 생각하듯이 물상이 순환적인 흐름의 과정 속에 있다면 블룸처럼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진다. 인간이 신이 되는 동시에 콧구멍이 문드러진 시체도 된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전하는 실존과 역사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블룸이 염두에 둔 흐름은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시간적 변화의 성격이 강하다. 그에게는 과거가 지금보다 행복했다고 여기는 아쉬움이나 밀리(Milly)가 성장해서 직업을 가진 것과 취미의 격세유전적 전이가 삶의 흐름을 증명하는 것들이다.

행복했어. 그때는 더 행복했지. 작고 아늑한 방에 붉은 색 벽지가 있었고. 도크렐 집에서 샀어 한 다스에 1실링 9펜스주고. 밀리가 목욕하던 밤. 내가 산 미제 비누: 딱총나무꽃 향기. 목욕물의 아늑한 냄새. 온 몸에 비누를 발라놓으니 웃겼지. 몸매도 예뻐고. 이제는 사진술을. 불쌍한 아버지는 은판사진 작업실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유전적인 취미야.

그는 연석을 따라 걸었다.

삶의 흐름. (U 8.170-76)

삶의 흐름은 이처럼 지나가버린 과거와 격세유전적인 반복 속의 과거 등에서 환기되는 대로 현재와의 차이, 즉, 소멸 혹은 부재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다.

세상일은 똑 같이 흘러간다, 날마다: 경찰 분대는 줄지어 나갔다가 들어온다: 전차는 들어왔다 나간다. 저 두 미치광이는 이리저리 떠돈다. 디그넬은 실려 나갔고. 미나 푸어포이는 불룩한 배로 침대에 누워 아기를 뱉어내려고 진통 중에 있다. 어디선가 매초마다 한 명이 태어난다. 매초마다 다른 이는 죽고. (U 8.477-81)

삶은 항상 이렇게 흐르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물은 항상 흘러간다. 결코 같은 적이 없지. 우리가 밟아 온 삶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밟아간다. 왜냐하면 삶도 흐름이니까.”(U 8.94-95) 만일 블룸이 이러한 삶의 흐름을 또 다른 생성을 위한 기회라고 인식하였다면 그의 혁명가적 면모가 구성되었지만, 살펴보았듯이 그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집중한다. 인간의 세계는 신의 세계와 신의 뜻을 구현하려는 단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계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체계로서 상황에 길항적으로 반응하여 연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운동이 되며 흐름을 조성하여 생존을 지속한다. 이러한 실존적 조건에 대한 인식이 결국 역사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III. 맺는 말: 삶의 흐름과 역사

블룸의 의식 속에 흐름으로 포착된 더블린의 삶의 모습은, 신과 단절된 인간의 세계에서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 관행이 지배하며 정치 행위 자체가 식물화된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끈고한 상황에서 삶의 흐름은 무익한 반복적 동일성(Blamires 63)이라는 허무주의적 소실을 선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블룸의 의식 속에 명기된 삶의 흐름은 오페라 “마리따나”(Maritana)의 가사 속에 나오는 구절처럼 흘러가면서도 귀중한 가치를 남기는 과정이다.

모든 것은 항상 지나가지, 인생의 흐름, 우리가 밟아 온 인생의 흐름 속에서 [기억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다. (U 5.563-64)

이 노래의 전체 내용은 흐르는 세월 동안 모든 것들 중에서 기억 혹은 추억이 가장 귀하다는 것인데(Gifford 100) 그 노랫말은 소멸 혹은 부재의 연속이 소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단선적인 입장으로 연표될 수 있으나, 시차의 문제에서도 암시하였듯이 역사 또한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서의 시차 때문에 발생하게 된 소멸 혹은 부재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 대한 시차는 당대의 다양한 인식을 반영하더라도 통시적으로는 응시대상의 소멸 혹은 부재와 동반하는 관점의 변화로 이어져 흐름을 생성하게 되므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실존적인 조건을 실천하는 것이 역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는 시차가 형성하는 양가성과 통시적 차원의 삭제 및 부재의 연속을 포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 모든 단어와 심상이 한 가지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것도 지칭하며(Eco 48) 그 결과가 ‘기억의 딸들’(U 2.7)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다.

(명지대)

인용문헌

- Blamires, Harry. *The New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Ulysses*. Rev. ed. London: Routledge, 1988.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0.
- Eco, Umberto. *The Aesthetics of Chaosmos: The Middle Ages of James Joyce*. Tr. Ellen Esroc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Friedman, Melvin J. "Lestrygonians."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s.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131-46.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Rev.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Higgins, Lesley. "'Lovely Seaside Girls' or 'Sweet Murderers of Men?': Fatal Women in *Ulysses*." *Gender in Joyce*. Eds. Jolanta W. Wawrzycka and Marlena G. Corcoran.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47-61.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59.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
- _____. *Exiles*. London: Penguin Books, 1973.
- _____. *Ulysses*. The Gabler Edi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86.
- Miller, Jacques-Alain, ed.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 Tr. John Forrester. London: Norton, 1988.
- "Parallax." *Columbia Electronic Encyclopedia*. Columbia University Press. 07 Mar. 2008. <Reference.com <http://www.reference.com/browse/columbia/parallax>>.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Abstract**The Stream of Life: Parallax and Peristalsis**

Ihnkey Lee

This essay attempts to examine how Joyce materializes the stream of life. We use the notions of parallax and peristalsis, forming the process of life. Although the two notions appertain to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perspective and movement, they can combine to represent the physical principle that difference leads to movement. In a Bloomesque idea of life, the difference between perspectives causes perceptions to change into another phase, which forms movement. Stream follows.

Bloom goes through the Joycean Lebenswelt of religion, family, and politics. He reveals that ambivalent perspectives exist with regard to priests, wives, and politicians. In his mental process, they lead to a disappearance or an absence of God, woman, and Messianic leader respectively, leaving a space for another appearance. It signifies the peristaltic movement of perspectives. While such a movement continues, life flows with consecutive disappearances and appearances of beings.

Such a stream of life corresponds to history. Based upon afore-mentioned idea of history, some critics say Joyce proclaims disorder and presents nihilism in irrational order. But the stream of life, however gloomy it appears, proves a Bloomesque idea of mature life with toleration of disorder and nihilism. Since the toleration allows differences between perspectives, its resulting movement ensures the continuation of history.

■ **Key words** : parallax, peristalsis, difference, movement, stream of life, disappearance or absence, history

(시차, 연동, 차이, 운동, 삶의 흐름, 소멸 혹은 부재, 역사)

논문 접수: 2008년 5월 18일

논문 심사: 2008년 6월 5일

게재 확정: 2008년 6월 13일